2009학년도 수시2 일반학생전형(논술형) 인문사회계열

문항 1. 다음에 제시된 자료와 도표를 참고하여 한국사회의 소득분배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가> 지니계수의 정의

실제 소득분배곡선인 로렌츠 곡선과 가상 소득분배균등선 간의 면적 비율에 의거한 소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균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각국의 지니계수

국가명	지니계수
덴마크	0.247
일본	0.249
벨기에	0.250
스웨덴	0.250
체코	0.254
노르웨이	0.257
슬로바키아	0.258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0.262
우즈베키스탄	0.268
헝가리	0.269
한국	0.316
프랑스	0.327

자료: World Bank (2005)/ 한국의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의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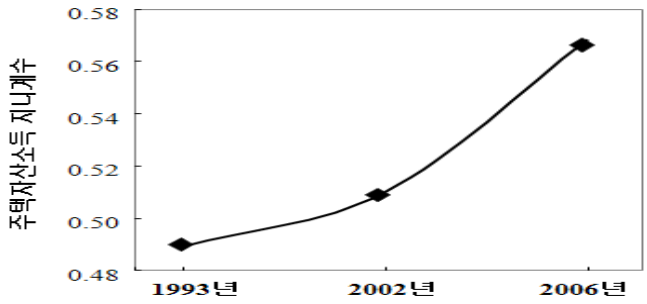
<다> 국내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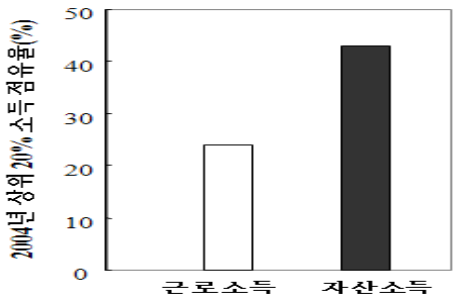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가구소득	0.40	0.39	0.41	0.42	0.42	0.44
금융소득	0.61	0.75	0.62	0.62	0.66	0.69
부동산소득	0.69	0.61	0.65	0.76	0.70	0.65
자산소득	0.71	0.72	0.65	0.65	0.77	0.75
근로소득	0.31	0.31	0.34	0.33	0.35	0.36

주1) 자산소득: 금융소득+부동산소득+기타소득(표에 나타내지 않음)

주2)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결과이며, 가구소득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것들은 변형하거나 세분화한 자료임

<라> 국내 주택자산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및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점유율





문항 2. 다음 두 제시문에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입장을 설명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제시하시오.

제시문 <가>

자연 속에 직선은 없다. 있다 해도 그것은 곡선의 일부이거나 잠시적인 것이다. 지구라는 행성 위에 오직 인간만이 직선을 만들어내고 또 좋아한다. 크게 잘못된 일이다. 자연에 직선이 없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개체는 전체를 닮기 마련이다. 만약 지구가 평평한 판 모양으로 생겼다면 그 안은 온통 직선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래야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구는 둥글다.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또 동그라미가 있다. 이것들이 깨지고 터지고 눌리고 서로 붙고 늘어나 다양한 곡선을 만들어낸다. 지구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곡선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다. 균형 잡힌 몸매의 유려한 곡선은 시대를 초월하여 예술가들의 찬미의 대상이었다. 서로 아껴주고 감싸는 영혼의 아름다움 역시 곡선이다. 인간은 곡선 안에서 휴식을 느낄 수 있다. 나지막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걷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진다. 곡선이 주는 치유의 효과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간들은 직선을, 그것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중략) 직선 속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 아직도 귀족들의 작위가 존경받고 있는 영국에 가서 좁아터진 골목길과 울퉁불퉁한 도로, 검소한 집안 살림 따위를 보고 콧방귀를 뀌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국의 저력이 그 안에 감추어진 곡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곡선정신과 조선의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해학적 곡선을 어떻게 이 시대의 도시와 마을에 살려낼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제시문 <나>

흔히 느린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들으며, 매사에 동작이 굼뜬데다가 서투르다는 말도 듣는다. 심지어 매우 힘들고 까다로운 작업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워낙 행동이 느려서 그렇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좀 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여유 있는 동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도 우아함이라고 보기보다는 운동신경이 느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그들은 일을 할 때도 온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대강대강 시간만 때운다는 의심을 받는다. 현대인들은 머리 회전이나 동작이 느린 사람보다는 민첩하고 빠릇빠릇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 후자들은 잽싼 손길로 식탁을 정리하면서도, 나지막하게 부탁하는 소리까지 금방 알아듣고는 재빠른 동작으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 준다. 뿐만 아니다. 속셈에서도 그들을 당할 자가 없다. 그들의 신속한 동작, 재빠른 반응, 예리한 시선, 날씬한 외모, 선명한 윤곽 속에는 번쩍이는 생동감이 넘쳐흐른다. 한마디로 그들은 활발하고 재기발랄하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어쩌다 곤경에 빠졌다 해도 금방 헤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나는 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바로 느림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중략) 나는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나이들, 모든 계절들을 아주 천천히, 경건하고 주의 깊게 느껴가면서 살기로 결심했었다. 그러나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빨리 달려갔다. 2차세계대전중에 독일 기갑사단들이 프랑스를 침범한 후 전국을 점령하는 데 걸린 기간은 40일도 채 안되었다. 오늘날 이렇게 끔찍하게 빠른 삶을 살아가는 데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미처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아직도 길거리에서 서성대고 있다.